

(07330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, 농협재단빌딩 10층 대표전화 02)368-3600 팩스 02)368-3700

문서번호 MKT(ST)2402-076
시행일자 2024-02-21
수 신 수신처 참조
발 신 NH-Amundi자산운용(주) 대표이사
제 목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 안내

1. 귀 사(행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다음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에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펀드명 및 변경내역

펀드명	변경내역	약관변경
NH-Amundi 100년 기업 그린 코리아 증권투자신탁(주식)	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(2023.10.20 시행) 반영 - 비교지수 명칭 오기 정정	-
NH-Amundi 100년기업 그린코리아 30 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(2023.10.20 시행) 반영	-
NH-Amundi 장기성장 대표기업 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(2023.10.20 시행) 반영 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	-
NH-Amundi 장기성장 대표기업 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(2023.10.20 시행) 반영	-
NH-Amundi 장기성장 대표기업 증권자투자신탁2호(주식)	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(2023.10.20 시행) 반영	-
NH-Amundi OCIO 대체투자 혼합자산모투자신탁(재간접형)	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(2023.10.20 시행) 반영	-
NH-Amundi OCIO 주식형 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(2023.10.20 시행) 반영	-
NH-Amundi OCIO 채권형 증권모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	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(2023.10.20 시행) 반영	-
NH-Amundi 올바른지구 OCIO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	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(2023.10.20 시행) 반영	-
NH-Amundi 글로벌 회사채 증권모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	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(2023.10.20 시행) 반영	-
NH-Amundi 글로벌 회사채 증권자투자신탁(H)[채권-재간접형]	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(2023.10.20 시행) 반영	-
NH-Amundi 글로벌 회사채 증권자투자신탁(UH)[채권-재간접형]	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(2023.10.20 시행) 반영	-
NH-Amundi 글로벌 후순위채 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	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(2023.10.20 시행) 반영	-
NH-Amundi 글로벌 후순위채 증권자투자신탁(H)[채권혼합-재간접형]	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(2023.10.20 시행) 반영	-
NH-Amundi 글로벌 후순위채 증권자투자신탁(UH)[채권혼합-재간접형]	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(2023.10.20 시행) 반영	-
NH-Amundi 퇴직연금 4차산업혁명 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- 변동성(표준편차) 변경사항 반영 (9.24% → 5.80%, 4등급 유지)	-

나. 효력발생일 : 2024년 02월 27일 (화)

다. 업무 참고사항

- 수시공시 필요

① 판매사 홈페이지 공시 ② 투자자에게 이메일 송부 ③ 영업점 게시

※ 잔고 유무 관계없이 예탁결제원 판매등록 된 판매사에 한하여 안내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NH-Amundi자산운용 대표이사



수신처: NH농협은행, NH선물, NH투자증권, BNK투자증권, DB금융투자, IBK기업은행, IBK투자증권, KB증권, KDB생명, SC제일은행, SK증권, 경남은행, 광주은행, 교보생명, 교보증권, 대구은행, 대신증권, 메리츠증권, 미래에셋생명, 미래에셋증권, 부국증권, 부산은행, 비엔지증권, 삼성증권, 삼성화재, 신영증권, 신한은행, 신한투자증권, 우리은행, 우정사업본부, 유안타증권, 유진투자증권, 이베스트투자증권, 카카오페이증권, 코리아에셋투자증권, 키움증권, 하나은행, 하나증권, 하이투자증권, 한국투자증권, 한국포스증권, 한화생명, 한화투자증권, 현대차증권